◈ 8강: 슈미트 vs 아감벤
: 정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인생의 시작부터 사물화되어 버린 오류·왜곡·악습·의존성의 심층부에 훈육이 가해진다. 그 결과 인간 존재가 여전히 머무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젊음의 상태나 유년기의 어떤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결함 있는 교육 및 신앙 체계에 사로잡힌 인생 속에서 결코 나타날 기회가 없었던 '속성'을 참조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자기 실천의 목표는 자기 자신 내에서 결코 나타날 기회가 없었던 속성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면서 자기를 해방하는 행위이다.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 『주체와 타자의 통치: 1982-1983,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의 강의(Le gouvernement de soi et des autres: Cours au Collège de France(1982-1983)』

1.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 정치적인 것의 개념적 징표로부터 국가세계의 다원론이 생긴다. 정치적 통일체는 적의 현실적 가능성을 전제로 하며, 이와 동시에 공존하는 다른 정치적 통일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무릇 국가가 존재하는 한은 항상 복수의 국가들이 지상에 존재하며, 전지구와 전체 인류를 포괄하는 세계국가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정치적 세계란 다원체(Pluriversum)이지 단일체(Universum)가 결코 아니다. (...) 오늘날 강대국 사이의 전쟁은 세계전쟁으로 쉽게 발전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전쟁의 종결은 세계평화를 의미하고, 또한 동시에 철저하고 궁극적인 탈정치화라는 목가적인 최종상태를 의미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사라지게 될 착오에 불과하다.
-『정치적인 것의 개념(Der Begriff des Politischen)』

▶ 슈미트(Carl Schmitt, 1888-1985)는 전체 인류를 포괄하는 세계국가라는 것은 결국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모든 인류가 동지가 된다면 이것은 결국 '적과 동지'라는 범주의 폐기이자 동시에 정치적인 것의 폐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적도 설정되지 않는다면 정치적인 것이 성립될 수 없고 어떤 국가도 존립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세계를 하나의 동지로 이루어진 평화적 집단으로 만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슈미트는 "정치적 세계란 다원체(Pluriversum)이지 단일체(Universum)가 결코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었던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두 차례에 걸쳐 발발했던 세계대전으로 세계평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착각을 여지없이 공격하고 있는 대목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슈미트의 비관론이 날카로움을 발한다. 그는 국가란 어떤 식으로든지 상호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주요한 양분으로 삼아 존속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슈미트의 생각 이면에는 인간이란 존재가 끊임없이 적과 동지라는 정치적 범주를 통해서 편가르기를 할 것이라는 비관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정치는 벌거벗은 생명과 정치적 존재를 구분하는 것이다.

◈ 서양정치의 근본적인 대당 범주는 '동지-적'이 아니라 '벌거벗은 생명-정치적 존재', '조에(zoē)-비오스(bios)', '배제-포함'이라는 범주쌍이다. 정치가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 언어를 통해 자신에게서 벌거벗은 생명을 분리해내며, 그것을 자신과 대립시키는 동시에 그것과의 포함적 배제 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호모 사케르(Homo Sacer)』

▶ 슈미트의 적과 동지라는 범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설정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아감벤(Giorgio Agamben, 1942년 출생)이 제안한 정치적 범주 '벌거벗은 생명과 정치적 존재'는 한 개체 차원에서 그어지는 범주, 혹은 개체를 분열시키는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벌거벗은 생명'이 정치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체의 한 측면을 상징한다면, '정치적 존재'는 정치적 권리와 의무에 의해 보호되는 개체의 또 다른 측면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아감벤이 지적하고 있듯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폴리스라는 정치 공동체에 속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조에'라고 불렀고, 반면 정치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들은 '비오스'라고 불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오스', 즉 '정치적 존재'로 분류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이다. 그것은 언제든지 정치 공동체에서 부여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조에', 즉 '벌거벗은 생명'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킨다. '벌거벗은 생명'과 '정치적 존재', 혹은 '조에'와 '비오스'는 '포함적 배제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아감벤이 주목했던 것도 바로 이 점이었다. 이제 아감벤은 슈미트의 적과 동지라는 논리보다 더 깊은 층위의 정치적인 것의 범주를 해명하려고 시도했던 셈이다. 적이 아닌 동지에 속해 있어도 정치적 존재로서의 비오스는 항상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할 뿐이다. 언제든지 자신도 다시 벌거벗은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 공포감 때문이다. 그래서 개체는 자신의 내면에서 벌거벗은 생명의 힘이 분출되는 것을 감시하고 억제하려고 노력한다. 권력에 의한 자기 감시 혹은 자기 검열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푸코의 흔적이 분명하게 엿보이는 대목이다. 해고의 위험에 몸을 도사리는 노동자들처럼, 혹은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먼저 왕따를 공격하는 입장을 취하는 아이들의 경우처럼 말이다.